

# 2006년도 시가문학 분야 연구 동향

최현재(군산대)

- 1. 머리말
- 2. 분야별 연구 동향 개관
  - 2.1. 고대가요, 향가 분야
  - 2.2. 고려가요, 경기체가, 약장 분야
  - 2.3. 시조 분야
  - 2.4. 가사 분야
  - 2.5. 잡가, 시가교육 및 기타 분야
- 3. 맺음말

## 1. 머리말

이 글의 목적은 2006년도에 이루어진 고전시가 연구 성과를 개략적이거나 살펴보고 전반적인 연구 동향을 파악하는 데에 있다. 한 해 동안의 고전시가 연구를 일별하면 수적으로 적지 않았으며 질적으로도 상당한 수준의 성과를 남기고 있어 한 개인이 낱낱이 검토하기에는 벅찰 정도이다. 가능한 한 개별 연구 성과들을 빠뜨리지 않고 총망라하여 그 공과를 따져볼 터이지만, 혹시라도 부주의하여 누락시켰거나 과문한 탓에 간과한 것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이 글에서는 주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과 각 대학의 학위논문들, 그리고 단행본 저서들을 주요 검토대상으로 삼을 것이며, 기왕의 관례를 따라서 각 분야별로 시가 연구 성과들을 나누어 서술하도록 하겠다.<sup>1)</sup>

## 2. 분야별 연구 동향 개관

### 2.1. 고대가요, 향가 분야

고대가요 분야의 연구는 김영수의 논의(「시가에 나타난 생사의 공간관 고찰」) 외에 다른 논의들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침체되어 있다.<sup>2)</sup>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시대적 상거로 인해 자료가 제한되어 있어 연구자들의 관심이 후대의 시가 작품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고대가요 분야의 연구가 적지 않게 축적되어 있지만, 새로운 연구 방법론의 구축이나 관점의 전환을 통해 이 분야 연구의 활로를 개척해야 할 것으로 본다.

다음으로 향가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향가의 문화사적 체계 수립과 서정시로서의 향가 작품의 특질 규명에 집중하여 논의를 활발하게 펼친 서철원이 우선 눈에 띈다. 그의 박사학위논문(「신라 향가의 서정주체상과 그 문화사적 전개」)과 일련의 소논문들(「나말여초 향가의 지속과 변모 양상」, 「<서동요> 전승의 형성과 사상적 배경」, 「<풍요>·<원왕생가>의 수용자와 향가의 시적 자아」, 「진평왕대의 <혜성가>와 <서동요> 비교」, 「신라중대 향가에서 서정성과 정치성의 문제」)은 공통적으로 ‘서정주체’<sup>3)</sup>를 향가 작품론의 기본 골격으로 삼아 역사적 장르로

1) 2006년도에 간행된 단행본들 중 대부분은 그 이전에 발표한 논문들을 모아서 엮은 것이거나 박사학위논문을 주 내용으로 한 것이다. 이들 단행본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이 글의 검토 대상이 아니므로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고 말미의 참고문헌에 서지사항만 제시하기로 한다.  
2) 고대가요 <공무도하가>, 향가 <제망매가>와 <원왕생가>, 서사무가 <바리공주>를 대상으로 고대인의 삶과 죽음에 관한 공간인식에 대해 살펴본 김영수의 논의도 엄밀하게 말해 고대가요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3) 그는 향가가 배경설화와 함께 전승되어 왔으며, 향가의 시적 자아는 배경설화 속에서 수용자와 직접 만난다는 점에 기반을 두고 배경설화에서 주체가 지향하는 서정성의 역할, 시적 자아와 작가의식과의 결합 관계 등을 고려하여 ‘시적 자아’를 포괄한 상위 범주로서 ‘서정주체’를 설정하고

서 향가의 전개과정을 체계화하려는 의도에서 마련된 것이다. 특히 향가 자료의 제약으로 인한 곤란을 극복하기 위해 사상사·미술사 관련 사료와 문화사 자료들을 원용하여 논의의 폭을 넓히고 있는 것은 독특한 점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논의들은 향가의 본질적 면모로서의 서정성과 효용성의 대칭적 특징, 종교적 감성의 문화사적 중요성, 향가의 문화사적 체계화 등을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향가 해독에 대한 새로운 시도를 적극적으로 모색하지 않고, 기존의 해독상 성과를 선별적으로 활용하여 논지를 전개한 점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향가 연구에서 어학적 해독과 문학적 해석 간에 균형과 조화를 이루기란 매우 어려운 작업이 될 것이다. 특히 문학과 어학으로 경계를 분명히 하여 연구하는 학계의 관행이 유지되는 한 향가 연구에서 보다 진전된 성과를 내기란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볼 때, 신재홍의 저서 『향가의 미학』은 단연 돋보이는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저서는 향가 작품의 어학적 해독과 문학적 해석을 병행하여 그 성과를 단행본으로 묶어 출간한 『향가의 해석』과 함께 곁들여 살펴볼 만한 것이다. 전작에서 이루어낸 향가의 어학적 해독을 발판으로 삼아 향가의 문예 미학적 특성을 집중적으로 고찰한 것이 곧 『향가의 미학』이다. 이 저서는 의미와 기호, 내용과 형식의 복합체로서 향가 작품을 분석하여 서정시로서의 향가를 다각적으로 조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저서의 이채로운 점은 최근에 발견된 『화랑세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sup>4)</sup> 향가 관련 자료가 한정되어 있다는 현실을 타개하고 향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설정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에 저자가 나름대로 고심하여 선택한 것이겠지만 자료의 진위 문제가 논란 중이라는 점에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향가의 어학적 해독과 관련하여 황선엽의 논의(「원왕생가의 해독에 대하여」)는 향가를 연구하는 문학 쪽에서도 크게 참고할 만하다. <원왕생가>를 대상으로 하여 석독구결 자료 및 15세기 국어 연구를 통해 축적된 지식을 기반으로 가능한 한 국어사적 사실에 부합하는 해독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자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단순한 추정이나 가정에 의한 해독일 경우 그것을 명확히 밝히고 현재의 수준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미상으로 처리하는 등 완결된 해독은 아니지만, 향가 전편의 해독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연구가 크게 기대된다.

현승환(「해가 배경설화의 기자의례적 성격」), 이동철(「수로부인 설화의 의미」), 김은수(「수로부인설화와 <헌화가>」) 등의 논의들은 모두 『삼국유사』 소재 <수로부인>조의 설화에 집중하여 그 성격을 규명하고 이어서 <헌화가>나 <해가>와 같은 관련 작품을 검토하고 있다. <수로부인>조의 배경설화가 지닌 복잡성과 다층성으로 인해 파생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표명하였는데, 이 세 편의 논의 역시 이러한 관심의 연장선상에서 행해진 것들이다. 세 편의 논의들은 연구방법론에서 모두 사회문화적 접근 방식을 택하고 있어 흡사한 점이 많지만, 대상에 대한 시각의 차이로 인해 서로 다른 결론을 도출시키고 있어 흥미롭다. 특히 현승환의 논의는 ‘기자의례적 성격’에 대한 비판적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라 ‘기자의례적 성격’에 집중하여 논의를 편 이동철의 견해와 견주어서 살펴볼 만하다.

신라의 향가와 일본의 고대시가를 비교한 최정선(「한·일 고대시가의 가론 비교 연구, 「作·唱·詞를 중심으로 본 향가의 특성」)과 이연숙(「향가와 『만엽집』 작품의 불교 형상화 방식 비교 연구」)의 논의들은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에서 자국어 시가가 차지하는 위상과 의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것들이다. 최정선의 논문 두 편은 동아시아 문학사의 관점에서 향가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밝히는 작업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이며, 이연숙의 논문은 소재, 표현법, 구조의 측면에서 향가와 『만엽집』 작품의 불교 형상화 방식을 검토한 것이라는 점에서 각각 향가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향가가 수록되어 있는 『삼국유사』에 대한 관심은 김창원의 논의(「‘기이’, ‘감통’의 서사와 향가의 작품세계」)와 박상영의 논의(「『삼국유사』 소재 찬시를 통해 본 일연의 세계인식」)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김창원의 논의는 그간 『삼국유사』의 신화와 주술적 표상들이 대부분 알레고리화를 통해 제거되거나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되어 『삼국유사』에서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新異’의 문제가 해석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신화적·주술적 표

있다. 또한 향가와 결부된 배경설화는 향가의 창작배경과 그 성격, 효과, 관련 자료와 『삼국유사』 편찬자의 인식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향가의 배경 이상을 서술한다는 점에서 ‘배경설화’ 대신에 ‘전승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4) 신재홍의 「신라 귀족의 사랑과 향가의 일상성」이라는 논문도 『화랑세기』를 중심으로 논의를 개진한 것이다.

상들에 내재된 의미를 추출하고자 한 것이다. 박상영의 논의는 『삼국유사』 소재 동일 서사문맥을 공유하는 향가와 찬시의 구조적 대비를 통해 편찬자 일연이 지닌 세계인식의 일단을 검토한 것이다.

그 외에도 향가의 시학적 원리의 하나로 노장적 성격을 상정하여 그 양상을 살핀 진창영의 논의(「신라 향가 작자의 노장적 성격 고찰」), 향가를 배경설화와의 관련성에 따라 제의문맥 향가와 비제의문맥 향가의 둘로 나누어 그 기능과 예술적 특징들을 검토한 최선경의 논의(「향가의 기능과 예술적 특징에 관한 연구」), 향가의 음악적 연구를 시도한 박상진의 논의(「향가의 삼구육명과 십이대강보의 관계 연구」), 향가 <처용가>와 고려가요 <처용가>를 구조와 성격을 중심으로 비교한 김진욱의 논의(「향가<처용가>와 고려가요 <처용가>의 비교 연구」), <찬기파랑가>와 <모죽지랑가>를 대상으로 하여 향가의 시간성을 고찰한 손중흠의 논의(「향가의 시간성에 대한 연구」) 등이 학계에 제출되었다.

## 2.2. 고려가요, 경기체가, 약장 분야

고려가요에 대한 연구는 고려가요의 형성과정이나 창작 성격, 양식적 성격 등에 대한 논의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성호경의 논의(「고려 후기 시가의 계통과 형성과정 고찰」)가 우선 주목된다. 고려 후기 시가 유형들의 형성과정을 구명하고 그 발생 및 발달의 계통을 면밀하게 고찰하고 있어 고려가요 전반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있다. 특히 고려 후기 시가에 끼친 원 산곡의 영향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다양하고 다기한 이 시기 시가의 형성과정과 계통, 그리고 후대의 계승양상까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충분히 인정할 만하다. 다만 고려 후기 시가작품들을 양식에 따라 ‘단편시가 부문’, ‘중편시가 부문’, ‘장편시가 부문’의 셋으로 나누어 형성과정을 고찰한 데에서 보듯이 시가의 형식에 치중하여 논의를 펼치고 있다는 점이 아쉬운 점이라 할 수 있다. 이후 형식에 부합하는 내용·주제적 특질까지 아울러서 면밀하게 고찰하여 이 시기 시가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본격적으로 기할 수 있기를 바란다.

김명준의 논의(「<쌍화점> 형성에 관여한 외래적 요소」)와 이수곤의 논의(「<정과정>의 창작 성격에 대한 시론적 고찰」), 엄국현의 논의(「고려궁정잔치노래와 무녀의 사랑노래」) 역시 형성과정 및 발생 계통에 관련된 것들로 볼 수 있다. 김명준의 논의는 민요에 원천을 둔 일부 고려가요와 <쌍화점>을 구별하여 작품 형성에 침투된 원 잡극과 이슬람적 요소들을 살펴보고 있다. 이수곤의 논의도 이와 유사한데, <정과정>의 민요기원설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개인 창작의 성격이 강한 이 작품의 창작 성격을 고찰하여 고려가요 형성 과정의 일면을 밝힌 것이다. 엄국현도 고려가요가 민요라는 관점을 굳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성과가 노력한 만큼 따르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어 앞의 두 논의와 동궐에 놓인다. 그는 <청산별곡>, <동동>, <정석가>, <처용가>, <서경별곡> 등의 고려가요가 굿노래에서 발원한 고려궁정잔치노래라고 규정하고서 이들 작품들의 성격을 논하고 있다. 즉 이들 고려궁정잔치노래 중 슬픈 사랑노래는 신에 대한 무녀의 사랑노래이며, 관능적 사랑노래는 풍요를 빌기 위한 곳에서 불려진 희극적 굿노래라는 주장이 그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종진의 논의(「고려속요의 주제 양식적 성격 고찰」)도 함께 살펴볼 만한데, 이 역시 민요적 기반의 서정적 성격에 편중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즉, ‘교훈’과 ‘교술’로 대변되는 주제 양식적 성격이 서정적인 성격과 함께 우리 시가에 면면히 이어져 왔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고려가요에도 이러한 주제 양식적 성격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들은 고려가요 각 작품들이 그 기원이나 성격, 형식, 내용 등에서 다양한 면모를 보여 단일한 시가 장르로 보기 힘들다는 데에 인식을 함께 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앞으로 고려가요의 형성과정에 대한 통념을 깨고 그 다채로운 면모와 형성과정을 면밀하게 밝혀줄 후속 작업이 조속히 나오기를 기대한다.

한편 박경수의 논의들(「현대시의 고려 가요 패러디의 양상과 담론」, 「현대시의 고전시가 패러디 양상과 담론」)은 고전시가에 대한 논의를 확장하는 차원에서 향가와 고려가요를 변용한 현대시 작품들에 주목하고 있다. 현대시의 고전시가 패러디를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그 양상을 드러내는 데에 그치고 있어 다소 아쉽긴 하지만, 고전시가의 현대적 변용과 창조적 계승을 바탕으로 한 고전시가에 대한 재인식이라는 측면에선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할 것이다.

박경주의 논의(「여말 선초 문인층과 승려층의 시가교류 현상에 대한 고찰」)는 여말 선초의 정치적·종교적 격변기에 문인층과 승려층의 시가문학이 어떠한 길항 작용을 하며 변화되어 갔는지 고찰하고 있어 주목된다. 관련 역사 자료의 한계로 인한 빈틈을 작품의 양상과 논리적 추정을 통해 메우면서 논지를 전개한 점이 이 논의의 한계이지만, 문인층과 승려층의 시가교류 현상에 주목한 착상은 흥미롭다고 할 수 있다.

그 외에 <청산별곡>이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도 상층 문인들에게 지속적으로 향유될 수 있었던 이유를 노랫말의 분석을 통해 밝혀보고자 한 최정윤의 논의(「<청산별곡>의 의미와 향유 의식」), 고려가요의 여음에 주목하여 작품의 특성과 성향, 의미, 기능을 고찰한 강명혜의 논의(「여음을 통한 고려가요의 의미 연구(1)」), 지역축제의 전형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동동>의 축제 연출 가능성을 타진한 최정삼의 논의(「<동동>의 지역 축제 연출 가능성과 그 개발 방안」) 등이 학계에 제출되었다.

다음으로 경기체가 분야의 연구는 다소 침체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소략한 편인데, 안병태의 저서(『근재 안축의 생애와 문학』)와 조연숙의 논의(「涵虛堂의 경기체가 고찰」) 외에 달리 찾아보기가 힘들다. 안병태의 저서는 안축의 생애를 정리하고 그의 경기체가 작품들과 한시문들을 두루 검토한 것이며, 조연숙의 논의는 함허당 기화가 조선 초기에 지은 불교계 경기체가 <안양찬>과 <미타경찬>을 대상으로 하여 불교 수용의 양상을 고찰한 것이다.

악장에 대한 연구로는 조규익의 논의들(「조선 초기 악장을 통해본 전환기의 실상, 「시조와 궁중 악장의 관계」)과 신경숙의 논의(「조선후기 연향의식에서의 현토체 악장 연구」), 신두환의 논의(「악장 <親祀文廟頌>의 미학 탐구」) 등을 들 수 있다.

악장에 대한 조규익의 관심은 해마다 수편의 논문들을 통해 구체화 되고 있는데, 「조선 초기 악장을 통해본 전환기의 실상」은 고려시대의 악장과 조선시대의 악장의 비교를 통해 여말선초의 전환기적 실상과 논리를 파악하려는 논의이다. 표현과 미학의 측면에서 고려 악장은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며 흥취지향의 미학을 구현한 데 반해 조선의 악장은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며 이념지향의 미학을 구현하였다는 점에서 구별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비교를 토대로 조선의 악장이 사실에 입각한 임금들의 공적을 구체적으로 거론함으로써 내용의 사실성에 대한 근거로 삼고자 했으며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국가 이념으로 수렴되도록 했다는 점에서 고려시대와 미학적 성향이 달라졌다고 설명하고 있다. 「시조와 궁중 악장의 관계」에서는 조선시대에도 민간음악과 궁중음악의 교섭은 활발하였으며, <장가 북전>이 <단가 북전>으로 바뀐 것은 민간의 음악이 궁중음악에 영향을 준 결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통해 궁중음악과 민간음악은 확연히 구분된다는 종래의 상식과 다른 점을 시조시형과 악장의 관계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신경숙과 신두환의 논의는 국문악장 중심의 연구에서 탈피하여 현토악장과 한문악장의 존재를 부각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 주목된다. 신경숙은 최근 19세기 궁중 연향에서 사용된 악장에 지대한 관심을 두고 수편의 논문들을 학계에 제출하고 있는데, 이 논의 역시 이러한 관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논의에서는 조선후기 궁중 연향의식에 사용된 현토체 악장과 의식과의 관계를 규명하고 있다. 신두환의 논의는 악장의 위상을 규명하기 위한 일환으로 조선 초기 집현전 학사 출신인 訥齋 梁誠之의 한문악장인 <親祀文廟頌>의 미적 특질을 탐구한 것이다. 이러한 논의들은 국문악장에 가려져 있던 현토악장이나 한문악장의 새로운 면모와 가치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작업이라고 할 것이다.

### 2.3. 시조 분야

시조 연구의 전체적인 경향은 이전과 비교하였을 때 크게 달라진 점은 없는 듯하다. 신자료 발굴 및 소개, 시조의 미학 탐구, 가객과 가집에 대한 연구, 시조 한역에 대한 관심, 자연시조나 산수시조 등 특정 유형의 시조 고찰, 개별 작가론 및 작품론, 시조의 현대화 방안 모색 등 이전의 연구 경향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예년에 비해

5) 신경숙, 「19세기 궁중연향 한글악장」, 『시조학논총』 20집, 한국시조학회, 2004; 신경숙, 「순조조 외연의 한글악장」, 『한국시가연구』 15집, 한국시가학회, 2004; 신경숙, 「야연의 '악가삼장' 연구」, 『고시가연구』 16집, 한국고시가학회, 2005.

사설시조에 대한 연구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것이 특이한 점이라 할 수 있다.<sup>6)</sup>

신자료의 소개와 관련하여서는 김영진의 논의(「조선후기 시가 관련 신자료(1)」)가 크게 주목된다. 조선후기 문집 류에서 樂師 全萬齋, 歌者 半癡 李台明, 塆소 연주자이자 가집 편찬자인 京山 李漢鎭, 광대 徐東亮과 禹春大 등과 관련된 자료들을 소개하고 있어 조선후기 시가 및 예술 연구에 일조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시조의 미학을 탐구한 경우로 박상영의 논의(「시조의 세계관적 구조와 그 시학적 의미」), 김학성의 논의들(「시조의 3장 구조 미학과 그 현대적 계승」, 「시조의 3장 구조와 미학적 지향」), 이도흙의 논의(「시조와 하이쿠의 미학에 대한 비교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박상영의 논의는 ‘기호-소통론적 시각’에 입각해 시조의 세계관적 구조와 그 구조에 함의된 시학적 의미를 밝힌 것이다. 이에 의하면 거시적인 측면에서 시조의 구조를 살펴보면, ‘발신자와 수신자’의 관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동일화와 거리화의 구조’가, 시적이고 미적인 ‘융합과 해체의 구조’보다 크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시조의 연행과의 관련성을 암시한다는 것이다. 미시적인 측면에서는 평시조가 해체와 거리화의 구조에 비해 융합과 동일화의 구조가 월등한 양상을 보이는 데 반해, 사설시조는 융합과 해체, 동일화와 거리화의 구조를 모두 비슷하게 보인다는 점에서 차이를 드러내는데, 이것은 조화와 대립의 세계관 및 향촌체험과 시정체험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기호학과 구조주의 방법론을 원용하여 적용하다보니 다소 도식적이긴 하지만 시조의 구조와 시학의 의미를 정치하게 규명하려 하였다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김학성의 논의들은 시조의 독특한 텍스트화 원리인 3장 구조가 지닌 미학적 특징과 지향점을 일본의 하이쿠와 중국의 한시와의 대비를 통해 규명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3장 구조의 미학이 현대시조에서는 어떻게 수용되어 나타나고 있는지를 작품사례의 분석을 통해 고찰하였다. 이 논의들은 시조의 구조미학을 다각적으로 조명하기 위해 시조를 하이쿠와 한시까지 대비시키고 이에 더 나아가 현대시조까지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논의의 폭과 깊이를 가늠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도흙의 논의 역시 하이쿠와 비교하여 시조의 미학을 규명한 것이다. 이 논의는 扈錫均의 시조와 마쓰오 바쇼오(松尾芭蕉)의 하이쿠를 비교 대상으로 설정하여 화쟁기호학이라는 연구방법론을 통해 시조의 형식적·내용적 미학을 추출한 것이다. 화쟁기호학이라는 다소 복잡한 방법론에 대한 선이해가 없이는 내용 파악이 힘든 논의이지만 한시라는 공동문어에 대응한 민족어시의 미학적 양상을 정밀하게 검토하여 동아시아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시조 미학과 연관된 것은 아니지만 전재강의 논의(「시조 문학에 나타난 유교 학문과 시적 자아의 성격」) 역시 시조 일반의 문학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논의는 유교 학문의 문체가 시조 문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하여 유교 학문과 시적 자아의 구체적 성격을 통시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거경과 궁리라는 유교 학문의 성격이 후대로 오면서 점차 분리되어 궁리의 학문이 우세하게 표현된다는 점이나, 행동적 실천자의 모습을 지닌 시적 자아가 후대에 와서는 관념적 실천자의 모습으로 변화한다는 점 등을 규명한 것은 시조의 이해에 도움이 되겠지만, 유교 학문이라는 다소 생경한 개념을 적용하여 이와 관련된 시조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이 논의의 한계라고 할 것이다. 시조 일반의 경향과 특징에 대한 고찰이라는 점에선 강명혜의 논의(「시조의 변이 양상」) 역시 그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시조의 발생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변이 양상을 통시적으로 살펴본 이 논의는 제한된 지면 탓인지 표피적 양상만을 서술하고 있어 변이의 동인과 심층적 의미를 규명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이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가객과 가집의 연구로는 우선 김용찬의 논의들(「안민영 <매화사>의 연창 환경과 작품 세계」, 「『금옥충부』를 통해 본 안민영의 기악 활동과 가곡 연창의 방식」)이 눈에 띈다. 이 논의들은 안민영의 작품들이 가곡의 연창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 집중한 것이다. <매화사>가 기존 사대부들의 연시조 창작 원리를 따르지 않고 가창의 필요에 의해 창작된 것이며, 더 나아가 『금옥충부』 역시 안민영의 치밀한 음악적 고려에 의해 탄생된 가집이며 여기에 수록된 음악의 곡조 역시 당시 연창되던 가곡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는 점을 밝힌 것은 값진 성과라 할 수 있다. 권택경의 논의들(「안민영 시조에 나타난 작가의식」, 「안민영 시조의 미의식 표출 양상」)

6) 사설시조에 대한 연구는 류해춘의 논의들(「금전을 매개로 한 사설시조의 성담론」, 「사설시조에 나타난 주부의 성담론(4)」)과 정영신의 논의(「조선후기 예로티시즘적 사설시조에 나타난 사회사적 인물 형상」)가 전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논의의 성과 역시 기존 연구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진 않는다.

도 안민영 시조에 대한 관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들이지만, 기존 연구의 성과를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는 점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김석희의 논의(「남훈태평가 시조의 소설 수용 양상과 그 의미」)와 최규수의 논의(「『남훈태평가』 소재 시조에 나타난 여성 인물상의 특징적 경향과 의미」)도 19세기 방각본 시조창 가집인 『남훈태평가』에 주목하고 있어 가집 연구의 범주에 속하는 것들이다. 김석희의 논의는 조선후기의 독특한 문학현상의 하나인 ‘시조의 소설 수용’이라는 측면에서 『남훈태평가』의 특성과 위상을 조명한 것이다. 이 논의는 서정의 본령인 주관적 감정의 표백에서 멀어져 정보 내용 자체를 객관적으로 전달하거나 그것을 극적으로 재구성하여 서사적 흥미를 극대화하는 경향이 『남훈태평가』가 지향한 대중화 전략의 한 요소임을 밝혔다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최규수의 논의도 『남훈태평가』가 지닌 시조 대중화의 경향성을 짚어본 것인데, 여성 인물상 형성의 특징적 양상이 대중화의 한 양상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가집 연구와 관련하여 이상원의 논의(「『만세보』 소재 <해동영언>의 텍스트성 연구」)는 20세기 초 『만세보』에 연재된 <해동영언>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가집으로서의 성격과 의미를 조명하였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해동영언>이 신문 연재물이지만 전반적 분류 체계나 작가 배열 방식 등에서 명백한 가집 편찬 의식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소규모 가집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하고, 그 특성을 살펴보고 나아가 편찬자를 최영년으로 추정하기까지 하였다. 그의 또 다른 논의(「최영년의 고시조 연구와 그 의의」)는 <해동영언>의 편찬자로 추정한 최영년의 고시조 연구 경향과 그 연구사적 의의를 부각시키고 있어 앞의 논의와 한 짝을 이룬다.

시조와 한시의 관계 및 시조 한역에 대한 연구로는 장정수의 논의(「옥소 권섭의 시조 한역시 <翻老婆歌曲十五章> 및 관련 작품에 대하여」)가 돋보인다. 이 논의는 권섭의 문집 『옥소고(문경본)』에 수록되어 있는 22수의 시조 한역 작품들을 학계에 처음으로 소개하고 시조 한역의 배경과 내용상 특징 등을 살펴본 것이다. 이로써 시조 한역의 역사적 흐름을 구명하고 18세기 시조 문학의 경향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이 논의는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그 외에 정한기의 논의(「이경의 <변훈민가십팔장>에 나타난 <훈민가> 한역의 배경과 그 양상」)와 조홍욱의 논의(「시조에 사용된 한시구 연구」)도 이와 관련된 것들이다.

특정 유형의 시조 작품들에 대한 연구로는 권정은의 일련의 논의들(「문답형 자연시조의 유형과 존재 의의」, 「유거와 탐승, 자연미의 상보적 기반」, 「조선후기 변이형 자연시조의 미적 경계」)이 크게 주목된다. 문답형 자연시조의 형상화 유형에 대한 검토를 통해 자연미의 특성을 규명한 것, 기행가사와 강호가사의 자연미를 유거와 탐승이라는 체험의 측면에서 자세히 고찰한 것, <화암구곡>과 <애경당십이월가>를 통해 조선후기 자연시조의 변화유형과 그 미적 특질을 조명한 것 등은 모두 자연미라는 시조 미학의 한 특징적 양상을 정밀하게 살펴보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sup>7)</sup> 손오규의 논의(「한·중 산수문학에서의 산수형상화」)와 최동국의 논의(「조선조 산수시조의 수사적 특성」)도 이와 동계에 놓인 것들이다.

개별 작가론 및 작품론은 적지 않게 쏟아져 나왔는데, 그 양만큼이나 성과 역시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신희에 대한 관심이 두 편의 박사학위논문으로 구체화되었는데, 정소연의 논의(「신희의 절구와 시조 비교연구」)와 박해남의 논의(「상춘 신희 문학의 연구」)가 그것이다. 정소연의 논의는 신희의 절구와 시조를 대비하여 그 갈래적 특성과 원인을 언어학적으로 규명한 것인데, 절구와 시조의 매체가 되는 한문과 국어가 당시 문어와 구어였다는 점에 착안하여 두 언어적 속성이 갈래와 작시원리에 미친 영향을 찾고 갈래적 특성을 시학적으로 살펴본 것이다. 박해남의 논의는 이보다 더 포괄적으로 신희의 문학작품 전체를 다룬 것이다. 이 논의를 통해 개방적이고 상대주의적 관점을 띤 신희의 문학관, 형식과 내용에 따라 형이상의 시와 형이하의 산문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독특한 문장관,性情이나 天得에 바탕을 둔 자연스러움을 강조한 작품의 가치 평가, 우리말 시조의 존재가치를 명확하게 인정하고 실제 창작을 통해 독자적 의미를 부여한 점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어, 신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힘과 동시에 17세기 시가사의 흐름을 더욱 자세히 파악하게 하였다. 이에 덧붙여 기녀문학의 위상과 의의를 소수자로서의 기녀라는 측면에서 면밀하게 검토한 박애경의 논의(「‘소수자 문학’으로서의 기녀문학」)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논의는 기녀를 존재와 의식이 극단적으로 분리된 중층성의 집단으로 규정한 바탕 위에 조선 전·중기와 후기의 기녀문학의

7) 권정은의 「유거와 탐승, 자연미의 상보적 기반」이라는 논문은 가사 분야에 속하지만 논의의 편의상 여기서 함께 소개한다.

특징과 위상을 선명하게 대비하여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끈다고 할 수 있다.

안혜진의 논의(「위백규 <농가구장>의 권농가적 특성과 그 의의」)와 임주탁의 논의(「이야기 문맥을 고려한 황진이 시조의 새로운 해석」)도 개별 작가론 및 작품론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목할 만하다. 안혜진의 논의는 <농가구장>이 지닌 권농가로서의 성격을 드러내고 시가사적 의의를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또한 임주탁의 논의는 이야기 문맥을 적극 고려하여 황진이의 시조 작품들을 새롭게 해석하였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즉 선행 연구가 이야기 문맥과 부합하지 않는 해석에 기반하여 황진이 시조의 특성을 논하였다고 지적하고, 이야기 문맥을 고려하여 해석한 결과 황진이와 그의 시조는 예술적 기교가 아니라 정신적 사고 능력의 탁월함에서 새롭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 두 논의는 텍스트의 명료한 분석을 통해 새로운 해석을 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밖에 김상진의 논의(「신계영의 <전원사시가> 고찰」), 조태성의 논의(「漆室 李德一의 <우국가> 28장에 나타난 우국의 양상」), 김명순의 논의(「시조 <삼동에 베풀 입고>의 문헌 전승 양상 연구」), 김신중의 논의(「이순신 <한산도가>의 전승과 성격」), 윤영옥의 논의(「장육당의 육가와 완세불공」) 등이 개별 작가 및 작품에 대한 연구들이다. 이중 김명순과 김신중의 논의는 작자를 둘러싼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작품의 전승양상을 정밀하게 살펴본 것들로서 참고할 필요가 있다.

나정순의 논의(「고전의 현대적 계승과 변용을 통해 본 시조」)와 정기철의 논의(「전자문화시대의 시조」)는 시조의 현대화 방안을 모색한 것들이다. 나정순의 논의는 현대시조에서 고전을 재창조한 작품들에 주목하여 그 의미와 나아갈 방향을 점검한 것이다. 이 논의는 많은 현대시조들이 시조의 구조적 원리와 형식 미학을 체득하지 못한 채 내용의 기법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드러낸다고 지적하고, 고전을 다시 쓴 현대시조가 현재의 삶과 문화, 시대 현실을 반영하면서 시조의 형식 미학을 겸비할 때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진단하였다. 정기철의 논의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관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구술문화시대나 문자문화시대와 구별되는 오늘날의 전자문화시대의 특성을 점검하고 전자문화시대에 걸맞는 시조문학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 점이 관심을 끈다. 이에 덧붙여 고전시가교육의 현실을 되짚어보고 대학 전공 교과목에서 고전시가가 가지는 장점을 캐내어 활용할 방안을 모색한 최혜진의 논의(「고전시가교육과 문화콘텐츠」)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으므로 함께 참고할 만하다.

그밖에 김창원의 논의(「17-8세기 서울 및 근기 일대 전가시조 형성의 사회사」), 최재남의 논의(「어부 지향 공간으로서 驪江의 인식」), 권순희의 논의(「가곡 연창 방식에서 중대엽 한바탕의 가능성」)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창원의 논의는 전가시조의 역사상을 획일적으로 재단한 선행연구에 대한 반성적 고찰로서 지방 재지사족들에 의해 창작된 전가시조와 서울 및 근기 지역의 재경양반들에 의해 창작된 전가시조로 구별하여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최재남의 논의는 고려중기 이후 시가사에서 중요하게 대두된 어부가 전통의 한 맥을 집중적으로 검토한 것인데, 14세기 후반 특정한 시기에 여강이라는 어부 지향의 구체적 공간이 지닌 성격과 의미를 이색과 김구용을 통해 고찰하였다. 권순희의 논의는 그 동안 실체가 명확하지 않았던 중대엽 악곡과 창사에 대한 검토를 통해 중대엽 한바탕(편가)의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즉 17·18세기 중대엽의 사적 전개과정을 면밀하게 고찰하여 18세기 중반까지도 중대엽이 활발하게 연창된 사실을 밝힘으로써 18세기 초중반에 중대엽이 초삭대엽과 함께 거의 가창되지 않았다고 파악한 선행연구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 2.4. 가사 분야

가사 분야에서는 신자료의 발굴 및 소개, 규방가사 및 여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개별 작품의 특성 규명, 십이가사의 장르적 특징 고찰, 가사의 현대적 수용 및 변용 검토 등에 관한 논의들이 이루어졌다.

먼저 신자료의 발굴과 관련하여 구사회의 논의들(「새로 발굴한 가사 작품 <미강별곡>에 대하여」, 「<황산별곡>의 작자 의도와 문예적 검토」)이 크게 주목된다. 이 논의들은 미수 허목을 배향했던 미강서원의 주변 풍광을 읊으면서 허목의 덕망과 유풍을 기린 <미강별곡>과 공자 이래로 퇴계 이황에 이르는 동방의 도통을 밝히는 내용을 담은 <황산별곡>을 새로 발굴하여 작자를 추정하고 창작 배경과 작품의 특징을 개략적이거나 검토한 것이다. 이

두 자료는 19세기 가사문학의 경향과 특징을 파악하는 데 다소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김팔남의 논의(「새로 발견된 소악루 이유의 가사 몇 편에 대하여」)는 신자료의 발굴은 아니지만 그 전모가 미처 밝혀지지 않은 18세기 가사 작품 4편의 작자를 확정하고 그 시가사적 의의를 조명한 것이다. 수년전에 학계에 공개된 <사군별곡>, <충효가>, <옥경몽유가>, <망미인가> 등의 작자가 小岳樓 李滌라는 사실을 새롭게 밝혀내고 작품의 창작연대를 판명하여 18세기 가사 문학을 더욱 윤택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이 논의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신자료 발굴은 아니지만 정한기의 논의(「가사 <기음노래>의 작자와 창작 배경」)는 <기음노래>의 작자와 창작 배경을 새로이 밝혔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19세기 말 李命宰의 한역시 <演耘歌>라는 신자료를 활용하여 <기음노래>의 민요적 성격과 창작 동기를 규명하여 앞으로 ‘가사와 민요의 장르교섭’을 살펴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다음으로 눈에 띄는 것은 규방가사 및 여성에 대한 최근의 관심을 반영한 논의들이 상당수 있다는 점이다. 정무룡의 논의들(「합천 화양동 윤씨가 世傳 <기수가>의 논쟁 양상 연구」, 「합천 화양동 윤씨가 世傳 <기수가>의 문학적 함의」)은 합천 화양동 윤씨 문중에 세전해 온 규방가사 작품들을 대상으로 하여 ‘논쟁가류 규방가사’라는 하위 장르 설정을 모색한 것들이다. 7수의 규방가사 작품들이 신랄한 논쟁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화답형과는 거리가 있다고 보고서 논쟁 진술 양식의 특성을 집중적으로 조망하였다는 점에서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권순희의 논의(「화전가류 가사의 창작 및 소통 맥락에 대한 재검토」)는 화전가류 가사가 놀이가 끝난 이후에 창작되고 문중에 소통되면서 많은 답가를 산출하였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화전가류 가사가 가문의 화합과 결속을 도모하는 데 특별한 기회로 작용하였다는 점을 규명한 것이다. 화전가류 가사의 창작 및 소통 맥락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들 가사의 문학적 기능에 주목하였다는 점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세형의 논의(「가사를 통해 본 여성적 글쓰기, 그 반성과 전망」)는 최근에 고조되고 있는 여성주의와 여성적 글쓰기를 반성적으로 성찰한 것이다. 이 논의는 가사를 대상으로 여성적 글쓰기의 향방과 바람직한 진로를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 그 외에 김복희(「신변탄식류 규방가사에 나타난 꿈의 양상 연구」)와 김민주(「규방가사에 나타난 여성의식 연구」)의 학위논문도 여성주의의 시각에서 규방가사의 특징과 의의를 살펴본 것들이다.

개별 작품론으로는 <상춘곡>의 원전 표기에 주목하여 작품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시가사적 위치의 재규정을 시도한 김명준의 논의(「<상춘곡>의 결어 재해석과 시가사적 위치」)가 단연 돋보인다. 이 논의는 원전에 <상춘곡>의 결어가 “아모타백년행락어이만흔들었지허리”로 되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가사 기원의 시조 확장설과 <상춘곡>의 가사 완성설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나아가 이 작품이 15세기 정극인의 원 작품이라기보다는 전승과정에서 변이를 겪어 오히려 17·18세기의 강호가사들과 친연성이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밝혔다. 특히 이 논의는 그동안 원전 확인에 소홀한 태도를 보인 학계의 관행에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정재호·장정수의 공저(『송강가사』) 역시 원전에 기반을 둔 작품 주석 및 해설서라는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 『이선본 송강가사』를 중심으로 하여 원전을 세밀하게 비교·검토한 이 저서는 송강가사 연구의 기본 자료로 활용 가치가 높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송강가사에 대한 관심은 송강문학의 형성배경을 기호학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고찰한 박연호의 논의(「송강문학의 형성 배경」)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 논의는 龍과 鶴의 문화코드적 속성에 주목하여 이것이 중요한 의미로 사용된 <성산별곡>과 <관동별곡>, 시조 등을 분석하여 사대부관료로서의 직분의식이 송강문학의 형성에 중요한 사상적 기반으로 작용하였음을 밝힌 것이다. 새로운 관점에서 송강의 작품들에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논의는 참고할 필요가 있다.

전재강의 논의(「침핑 가사에 나타난 선의 성격과 진술 방식」)는 17세기에 창작된 침핑가사에 나타난 선의 성격과 그 진술 방식을 집중적으로 살핀 것이다. 이 논의는 침핑의 가사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일반 불교가사의 이해는 물론 가사문학 일반의 성격을 해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그 외에 정한기(「가사 <懶婦歌>의 형성배경에 대한 연구」), 권정은(「백상루별곡」의 누정문학적 정체성), 조태성(「<선운사풍경가>에 대하여」) 등의 논의들도 개별 가사 작품들을 고찰한 것들이다.

특정 작가에 대한 관심은 신경숙(「옥소 권섭의 음악경험과 18세기 음악환경」)과 김현식(「<영산별곡>과 <도동



가>를 통해서 본 권섭의 가사 창작 양상과 그 의미」)을 통해 구체화 되고 있다. 이 두 편의 논문들은 최근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 권섭에 대해 논의한 것들이다. 신경숙의 논의는 권섭이 다양한 종류의 음악에 폭넓은 관심을 가지고 최고 수준의 음악을 가늠할 만한 안목을 지녔지만 김천택, 김성기 등의 18세기 선구적 음악가와와는 교유한 적이 없었음을 조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18세기 음악사회 내부에 다양한 층위가 존재하였으며, 권섭은 전형적인 시대취향을 보여주는 경우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김현식의 논의는 권섭의 <영삼별곡>과 <도통가>를 대상으로 하여 가사창작의 양상과 그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 있어 권섭의 시가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다음으로 조선 후기 십이가사에 대한 논의들로 김은희의 논의(「가사의 가창방식에 대한 일고찰」)와 김창곤의 박사학위논문(「12가사의 악곡 형성과 장르적 특징」)을 들 수 있다. 김은희의 논의는 가사 가창방식의 하나로 ‘부분창’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이에 의하면 가사의 부분창은 가창을 위하여 시형을 단형화하되, 그 방식은 동일 악곡의 반복을 기반으로 하고 작품의 앞부분을 중심으로 단형화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일부만 취사선택하여 부르는 것을 가사의 부분창으로 파악한 선행 연구와 다소 차이가 있어 앞으로 이에 대한 더욱 진전된 논의와 해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김창곤의 논의는 12가사에 대한 음악적 분석으로 12가사 악곡의 생성·변화·형성과 시기별 특징에 대한 검토를 통해 그 장르적 특징을 규명하고 있어 참고할 만하다.

가사의 현대적 수용 및 변용과 관련해서는 정인숙의 논의(「<사미인곡>의 공연예술적 변용과 그 의미」)가 주목된다. 이 논의는 정철의 <사미인곡>과 뮤지컬 <사미인곡>을 비교하여 가사의 현대적 변용 양상을 검토하고 있어 최근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문화콘텐츠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김신중의 논의(「송강가사의 당대적 가치와 현대적 수용」) 역시 고전문학의 현대적 수용이라는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 논의는 고전문학을 현대적 입장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원론적 차원에서 송강가사를 검토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 다음 백순철의 논의(「소정가사의 독립의식과 문체적 특징」)는 현대 규방가사 작가 素亭 李輝의 작품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 정신세계와 미적 특질을 조명한 것이다. 이에 덧붙여 박요순의 논의(「紹古堂 高燾과 그의 가사연구」) 역시 또 다른 현대 규방가사 작가인 紹古堂 高燾의 작품들의 특징들을 고찰한 것이다. 이 논의들은 규방가사의 현대적 전승의 한 양상을 살펴보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점에서 흥미롭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허남춘의 논의(「가사를 통해 본 중국과 일본」), 박애경의 논의(「일본 기행가사의 계보와 일본관의 변모양상」), 최현재의 논의(「미국 기행가사 <해유가>에 나타난 자아인식과 타자인식 고찰」) 등은 모두 기행가사를 통해 시대인식과 타자인식을 고찰한 것들이다. 기행가사는 외국 문물의 경험을 중심 내용으로 담고 있어 그 당시의 시대인식과 대외인식 등을 살펴보기에 적합한 자료이므로 이전부터 많이 활용되어 왔다는 점에서 새로운 것은 없지만, 선행연구의 성과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더욱 심화시켰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 일상성의 측면에서 조선 후기 사대부 가사작품을 조명한 박경주의 논의(「18-19세기 사대부 가사에 나타난 일상성의 양상」), 개화가사의 주제를 시대성과 사회성으로 설정하고 그 주제 범주를 고찰한 장성진의 논의(「개화가사의 주제 범주」), 소통의 측면에서 서사적 가사담론의 주제의식을 살펴본 함복희의 논의(「서사적 가사 담론의 주제의식」) 등이 학계에 제출되었다. 이 중에서 특히 박경주의 논의는 구강, 흥원장, 위백규의 가사작품에 나타난 일상적 삶의 모습에 주목하여 그 양상을 드러내고 18-19세기 사대부 사회의 계층적 기반과 연관시켜 정밀하게 해석한 것이다. 이에 의하면 이 세 작가는 세밀한 묘사와 정서 표출이라는, 일반적인 사대부 작가와는 구별되는 공통된 특징을 보여주면서도 각자가 처한 신분과 계층적 기반에 따라 관점과 방식에서 서로 다른 차이를 드러낸다고 하였다. 가사작품을 통해 조선 후기 사대부 작가의 미세한 일상적 삶과 다양한 관점을 포착하였다는 점에서 이 논의는 흥미롭게 읽힌다고 평가할 수 있다.

## 2.5. 잡가, 시가교육 및 기타 분야

최근에 잡가에 대한 관심이 부쩍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박애경의 논의(「20세기 초 대중문화의 위상과 시가」), 장유정의 논의(「대중매체의 출현과 전통가요 텍스트의 변화 양상 고찰」), 고은지의 논의(「20세기 유성기 음반에 나

타난 대중가요의 장르 분화 양상과 문화적 의미) 등을 통해 2006년도에도 잡가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세기 도시문화의 일부로 성장한 통속적 시가가 20세기 이후 대중문화로 정착하는 과정을 살펴본 박애경의 논의나 유성기 음반이라는 대중매체의 출현으로 인해 잡가의 변화 양상과 의미를 고찰한 장유정의 논의, 역시 유성기 음반에서 재래 양식과 외래 양식의 공존과 분화 양상과 의미를 검토한 고은지의 논의 등은 모두 잡가를 포함한 전통가요가 20세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변모하며 향유되었음을 보여주는 것들이다. 이외에도 20세기 전반기에 여러 잡가집에 수록된 가사의 변모양상과 특징을 고찰한 박연이의 석사학위논문(「『잡가집』 소재 가사의 서술특성 연구」)과 음악적인 측면에서 잡가의 개념에 대해 재론한 한영숙의 논의(「잡가의 개념에 관한 재고」) 등도 잡가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 것들이다.

다음으로 시가교육에 관한 연구로는 염은열의 논의(「기행가사의 ‘공간’ 체험이 지닌 교육적 의미」), 서명희의 논의들(「시조 수용 태도 교육 연구를 위한 <오우가> 읽기」, 「시조 교육에서 태도의 개념」, 최홍원의 논의(「‘엇디허리’ 표현을 통해 본 고전문학교육의 가능성」) 등이 주목할 만하다. 염은열의 논의는 기행가사를 통해 역사적 특수성을 지니는 공간을 체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공간에 대한 작가의 인식이나 공간에 투영된 당대 사람들의 삶을 엿볼 수 있으며 그럼으로써 우리 주변의 공간에 대한 인문적 이해를 넓힐 수 있다는 관점에서 물리적 공간이 기행가사 작품 안에서 어떻게 변형되고 가공되는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러한 고찰은 교실에서 단순한 경유지나 견문 및 감상의 배경으로만 다뤄지던 공간을 기행가사 감상의 핵심 지식이자 코드로 자리매김 시켰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서명희의 논의들은 시조 교육에서 태도교육 영역의 목표와 내용을 체계화하기 위한 의도에서 마련된 것들이다. 이 논의들은 문학교육에서 정의적 영역인 태도교육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시조를 배운 사람이라면 세계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달라져야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관심을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홍원의 논의는 고전문학에 널리 분포하는 ‘엇디허리’라는 표현이 지닌 다양한 속성과 의미가 독자로 하여금 능동적이고 다양한 소통과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 표현을 고전문학교육의 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로 파악하고 있다. 즉 이러한 표현으로 유발되는 텍스트의 지평과 해석자의 지평 사이의 차이와 긴장이 고전문학의 본질적 속성이자 독자의 능동적 참여를 자극하는 힘이 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어 흥미롭게 살펴볼 만하다. 그 외에도 시조의 교육적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한 박춘우의 논의(「대화체 시조의 작시 원리와 교육적 활용 방안 연구」)와 이정환의 논의(「시조의 교육적 적용 방안 연구」), 초등학교교육에서 고전시가에 대한 교육이 전무한 실정에서 향가 <현화가>의 교재화 방안을 실제적으로 마련한 정우영의 논의(「<현화가>의 초등학교 국어교과서 교재화 방안 연구」) 등이 참고할 만하다.

마지막으로 시가 일반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조동일의 논의(「한시에 대응한 민족어시의 운율」), 박진태의 논의(「지역문학으로서의 고전문학」), 박연호의 논의(「놀이공간에서의 문학적 금기위반과 그 의미」) 등이 주목할 만하다. 조동일의 논의는 한시의 운율이 동아시아 각국의 민족어시의 운율 형성에 끼친 영향과 민족어시의 대응 양상을 집중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운율은 언어의 특질에 따라서 형성된다는 사실을 공동문어와 민족어의 언어 특질이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의 둘로 크게 나누어 실증적으로 고찰한 이 논의는 세계적인 범위의 폭넓은 비교연구를 위한 출발점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박진태의 논의는 지역문학이 현대인에게 수용되는 방식을 기록, 연구, 전시, 축제로 나누어 개괄적으로 살펴본 다음 <상춘곡>의 축제화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이 논의는 지역문학으로서의 고전문학이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되고 재창조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였다는 점에서 문화콘텐츠적 관심과도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박연호의 논의는 놀이공간에서 유통·향유된 시조, 사설시조, 민요, 규방가사 등에 나타난 금기 위반의 양상과 그 의미에 관심을 둔 연구이다. 이들 작품들이 보여주고 있는 도덕적 금기 위반의 양상을 심각한 갈등이나 저항 등으로 진지하게 해석한 기존의 견해에 대해 놀이 공간이라는 연행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비판한 것은 관심을 끌 만큼 흥미롭다.

그 외에 북한 고전시가관의 추이와 현대적 수용양상을 고찰한 김문태의 논의(「북한 고전시가관의 변모와 현대적 수용양상」)와 향가와 시조를 대상으로 하여 현실주의와 관념주의가 투영된 양상을 검토한 김은철의 논의(「고시가에 나타난 두 세계관」), 고전시가 작품에 쓰인 돈호법의 시적 기능을 시적 소통의 구조와 형상화 방식의 측면에서 살펴본 정종진의 논의(「고전시가 돈호법의 시적 기능고」) 등이 학계에 제출되었다.

### 3. 맺음말

이상으로 고전시가 연구 동향을 각 분야별로 개략적으로나마 짚어보았다. 일 년이라는 한정된 기간을 설정하여 고전시가 연구 성과물들을 검토하다보니 시가연구의 쟁점이 될 만한 논의들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내지 못하고 주마간산격으로 훑었다는 느낌이 드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다만 여러 연구자들에게 이 글이 미약하나마 시가연구의 최근 동향을 파악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2006년도 시가연구의 동향에 나타난 특징적인 면모를 간단히 간추려 제시하는 것으로 이 글을 마치도록 하겠다. 지난 한 해 동안 수많은 연구 성과물들이 학계에 제출되었지만, 몇몇 분야에서는 주목할 만한 연구를 찾기 힘들 정도로 연구자들의 관심과 손길이 거의 닿지 않은 것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다음으로 고전시가의 현대적 변용 및 계승과 관련하여 연구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시대적 추세를 반영하여 문화콘텐츠 사업과 연계하여 고전시가 작품들을 응용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교육 수요자의 관심과 반응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려는 것, 여성주의의 관점에서 고전시가를 새롭게 해석하려는 것 등은 앞으로도 더욱 장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재나 소스 제공 등의 외형적인 측면에서 고전시가를 확장하여 적용할 것이 아니라, 쉽진 않겠지만 고전시가의 본질적 속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부각시키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야말로 고전시가가 현대에도 존재할 수 있는 근거 기반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1. 고대가요, 향가

- 김영수, 「시가에 나타난 생사의 공간관 고찰」, 『동아시아고대학』 제14집, 동아시아고대학회, 2006
- 김은수, 「수로부인설화와 <현화가>」, 『고시가연구』 제17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6
- 김진욱, 「향가 <처용가>와 고려가요 <처용가>의 비교 연구」, 『고시가연구』 제18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6
- 김창원, 「'기이', '감통'의 서사와 향가의 작품 세계」, 『동양한문학연구』 23, 동양한문학회, 2006
- 박상영, 「『삼국유사』 소재 讚詩를 통해 본 일연의 세계 인식」, 『고전문학연구』 제30집, 한국고전문학회, 2006
- 박상진, 「향가의 삼구육명과 십이대강보의 관계 연구」, 성균관대 박사논문, 2006
- 박인희, 「<신층폐관>과 <원가> 연구」, 『신라문화』 제28집,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2006.
- 서철원, 「<서동요> 전승의 형성과 사상적 배경」, 『고시가연구』 제17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6
- \_\_\_\_\_, 「<풍요>·<원왕생가>의 수용자와 향가의 시적 자아」, 『한국시가연구』 제20집, 한국시가학회, 2006
- \_\_\_\_\_, 「나말여초 향가의 지속과 변모양상」, 『우리문학연구』 제20집, 우리문학회, 2006
- \_\_\_\_\_, 「신라 향가의 서정주체상과 그 문화사적 전개」, 고려대 박사논문, 2006
- \_\_\_\_\_, 「신라중대 향가에서 서정성과 정치성의 문제」, 『어문논집』 제53집, 민족어문학회, 2006
- \_\_\_\_\_, 「진평왕대의 <혜성가>와 <서동요> 비교」, 『고전문학연구』 제30집, 한국고전문학회, 2006
- 손종흠, 「향가의 시간성에 대한 연구」, 『논문집』 제42집,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06
- 신재홍, 「신라 귀족의 사랑과 향가의 일상성」, 『국문학연구』 제14호, 국문학회, 2006
- \_\_\_\_\_, 『향가의 미학』, 집문당, 2006
- 이동철, 「수로부인 설화의 의미」, 『한민족문화연구』 제18집, 한민족문화학회, 2006
- 이연숙, 「향가와 『만엽집』 작품의 불교 형상화 방식 비교 연구」, 『한국시가연구』 제21집, 한국시가학회, 2006
- 진창영, 「신라 향가 작자의 노장적 성격 고찰」, 『어문학』 제91집, 한국어문학회, 2006
- 최선경, 「향가의 기능과 예술적 특징에 관한 연구」, 『새국어교육』 제73호, 한국국어교육학회, 2006
- \_\_\_\_\_, 『향가의 제의적 이해』, 한국학술정보, 2006
- 최정선, 「作·唱·詞를 중심으로 본 향가의 특성」, 『고시가연구』 제17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6
- \_\_\_\_\_, 「한일 고대 시가의 가론 비교 연구」, 『비교문학』 40, 한국비교문학회, 2006
- 현승환, 「해가 배경설화의 기자의례적 성격」, 『한국언어문학』 제59집, 한국언어문학회, 2006
- 황선엽, 「원왕생가의 해독에 대하여」, 『구결연구』 제17집, 구결학회, 2006

## 2. 고려가요, 경기체가, 약장

- 강명혜, 「여음을 통한 고려가요의 의미 연구(1)」, 『동방학』 제12호, 한서대부설 동양고전연구소, 2006
- 김명준, 「<쌍화집> 형성에 관여한 외래적 요소」, 『동서비교문학저널』 제14호, 한국동서비교문학학회, 2006
- 박경수, 「현대시의 고려 가요 패러디의 양상과 담론」,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33집,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6
- \_\_\_\_\_, 「현대시의 고전시가 패러디 양상과 담론」, 『국제어문』 제38집, 국제어문학회, 2006
- 박경주, 「여말 선초 문인층과 승려층의 시가교류 현상에 대한 고찰」, 『고전문학과 교육』 제11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6
- 성호경, 「고려 후기 시가의 계통과 형성과정 고찰」, 『한국문화』 제37집,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6
- \_\_\_\_\_, 『고려시대 시가 연구』, 태학사, 2006
- 신경숙, 「조선후기 연향의식에서의 현토체 약장 연구」, 『어문논집』 제53집, 민족어문학회, 2006
- 신두환, 「약장 <친사문묘송>의 미학 탐구」, 『정신문화연구』 제29권 제3호(통권104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6
- 안병태, 『근재 안축의 생애와 문학』, 가람문화사, 2006
- 엄국현, 「고려궁정잔치노래와 무녀의 사랑노래」,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33집,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6
- 이수곤, 「<정과정>의 창작 성격에 대한 시론적 고찰」,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33집,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6
- 정종진, 「고려속요의 주제 양식적 성격 고찰」,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33집,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6
- 조규익, 「북한 문학과 약장」, 『온지논총』 제14집, 온지학회, 2006
- \_\_\_\_\_, 「시조와 궁중 약장의 관계」, 『시조학논총』 제25집, 한국시조학회, 2006
- \_\_\_\_\_, 「조선 초기 약장을 통해 본 전환기의 실상」, 『온지논총』 제15집, 온지학회, 2006
- 조연숙, 「涵虛堂의 경기체가 고찰」, 『고시가연구』 제18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6
- 최경삼, 「<동동>의 지역 축제 연출 가능성과 그 개발 방안」, 『고시가연구』, 『고시가연구』 제18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6
- 최정윤, 「<청산별곡>의 의미와 향유 의식」,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33집,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6

## 3. 시조

- 강명혜, 「시조의 변이 양상」, 『시조학논총』 제24집, 한국시조학회, 2006
- 권순희, 「가곡연창 방식에서 중대엽 한바탕의 가능성」, 『민족문화연구』 44,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2006
- 권정은, 「문답형 자연시조의 유형과 존재 의의」, 『국어국문학』 제144호, 국어국문학회, 2006
- \_\_\_\_\_, 「조선후기 변이형 자연시조의 미적 경계」, 『정신문화연구』 제29권 제4호(통권105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6
- 권택경, 「안민영 시조에 나타난 작가의식」, 『한국어문교육』 제15집, 한국교원대 한국어문교육연구소, 2006
- \_\_\_\_\_, 「안민영 시조의 미의식 표출 양상」, 『인문논총』 제8집, 한국교원대 인문과학연구소, 2006
- 김명순, 「시조 <삼동에 배웃 입고>의 문헌 전승 양상 연구」, 『시조학논총』 제24집, 한국시조학회, 2006
- 김상진, 「신계영의 <전원사시> 고찰」, 『시조학논총』 제24집, 한국시조학회, 2006
- \_\_\_\_\_, 『16-17세기 시조의 동향과 경향』, 새미, 2006
- 김석희, 「남훈태평가 시조의 소설 수용 양상과 그 의미」, 『고전문학과 교육』 제12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6
- 김신중 외 편저, 『호남의 시조문학』, 심미안, 2006
- \_\_\_\_\_, 「이순신 <한산도가>의 전승과 성격」, 『한국언어문학』 제57집, 한국언어문학회, 2006
- 김영진, 「조선후기 시가 관련 신자료(1)」, 『한국시가연구』 제20집, 한국시가학회, 2006
- 김용찬, 「『금옥총부』를 통해 본 안민영의 가악 활동과 가곡 연창의 방식」, 『시조학논총』 제24집, 한국시조학회, 2006
- \_\_\_\_\_, 「안민영 <대화사>의 연창 환경과 작품세계」, 『어문논집』 54, 민족어문학회, 2006
- 김중기, 「신재 주세봉의 교훈시조 연구」, 계명대 석사논문, 2006
- 김창원, 「17~8세기 서용 및 근기 일대 전가시조 형성의 사회사」, 『고시가연구』 제17집, 한국고시가학회, 2006
- 김학성, 「시조의 3장 구조 미학과 그 현대적 계승」, 『인문과학』 제38집, 성균관대 인문과학연구소, 2006
- \_\_\_\_\_, 「시조의 3장 구조와 미학적 지향」, 『한국시조시학』 통권제1호, 한국시조시학회, 2006
- 나정순, 「고전의 현대적 계승과 변용을 통해 본 시조」, 『시조학논총』 제24집, 한국시조학회, 2006
- 류해춘, 「금진을 매개로 한 사설시조의 성담론」, 『시조학논총』 제25집, 한국시조학회, 2006
- \_\_\_\_\_, 「사설시조에 나타난 주부의 성담론(4)」, 『시조세계』 제7권 제1호(통권22호), 시조세계사, 2006
- 박관수, 「사설시조와 민요의 사실 위음원리에 대한 대비적 고찰」, 『동아시아고대학』 제14집, 동아시아고대학회, 2006
- 박미영, 『한국시가론과 시조관』, 박이정, 2006
- 박상영, 「시조의 세계관적 구조와 그 시학적 의미」, 『한국시가연구』 제20집, 한국시가학회, 2006
- 박애경, 「소수자문학으로서의 기녀문학」, 『고전문학』 29, 한국고전문학회, 2006
- 박해남, 「상촌 신희 문학의 연구」, 성균관대 박사논문, 2006
- 손오규, 「한·중 산수문학에서의 산수형상화」, 『한국시가연구』 제21집, 한국시가학회, 2006
- 신연우, 『이항 시의 깊이와 아름다움』, 지식산업사, 2006
- 신용순, 「시조장 분류고」, 『시조학논총』 제24집, 한국시조학회, 2006
- 안혜진, 「위백규 <농가구장>의 권농가적 특성과 그 의의」, 『한국시가연구』 제21집, 한국시가학회, 2006
- 윤영옥, 「장육당의 육가와 완세불공」, 『시조학논총』 제25집, 한국시조학회, 2006
- 이도흠, 「시조와 하이쿠의 미학에 대한 비교 연구」, 『한국시가연구』 제21집, 한국시가학회, 2006
- 이상원, 「최영년의 고시조 연구와 그 의의」, 『한국언어문학』 제58집, 한국언어문학회, 2006
- \_\_\_\_\_, 「『만세보』 소재 <해동영언>의 텍스트성 연구」, 『시조학논총』 제25집, 한국시조학회, 2006
- 임주탁, 「이야기 문맥을 고려한 황진이 시조의 새로운 해석」, 『우리말글』 제38집, 우리말글학회, 2006
- 장정수, 「옥소 권섭의 시조 한역시 <변노과가곡십오장> 및 관련 작품에 대하여」, 『어문논총』 44, 한국문학언어학회, 2006
- 전재강, 「시조 문학에 나타난 유교 학문과 시적 자아의 성격」, 『어문학』 제93집, 한국어문학회, 2006
- 정기철, 「전자문화시대의 시조」, 『한국언어문학』 58, 한국언어문학회, 2006
- 정소연, 「신희의 절구와 시조 비교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06
- 정영신, 「조선후기 예로티시즘적 사설시조에 나타난 사회사적 인물 형상」, 『온지논총』 제15집, 온지학회, 2006
- 정한기, 「이경의 <변훈민가십팔장>에 나타난 <훈민가> 한역의 배경과 그 양상」, 『고전문학과 교육』 제11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6
- 조유영, 「17세기 시조의 전개와 변모 양상」, 경북대 석사논문, 2006
- 조태성, 「漆室 李德一의 <우국가> 28장에 나타난 우국의 양상」, 『고시가연구』 제18집, 한국고시가학회, 2006
- 조홍욱, 「시조에 사용된 한시구 연구」, 『어문학논총』 제25권,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2006
- 최규수, 「『남훈태평가』 소재 시조에 나타난 여성 인물상의 특징적 경향과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2집,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6

- 최동국, 「조선조 산수시조의 수사적 특성」, 『시조학논총』 제25집, 한국시조학회, 2006  
 최재남, 「어부 지향 공간으로서 驪江의 인식」, 『한국문학논총』 제44집, 한국문학회, 2006  
 최혜진, 「고전시가교육과 문화콘텐츠」, 『고전문학과 교육』 제11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6

## 4. 가사

- 구사회, 「〈황산별곡〉의 작자 의도와 문예적 검토」, 『한국언어문학』 제59집, 한국언어문학회, 2006  
 \_\_\_\_\_, 「새로 발굴한 가사 작품 <미강별곡>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제142호, 국어국문학회, 2006  
 권순정, 「고전시가의 어휘교육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06  
 권순희, 「화천가류 가사의 창작 및 소통 맥락에 대한 재검토」, 『어문논집』 제53집, 민족어문학회, 2006  
 권정은, 「〈백상루별곡〉의 누정문학적 정체성」, 『어문학』, 한국어문학회, 2006  
 \_\_\_\_\_, 「유거와 탐승, 자연미의 상보적 기반」, 『고전문학과 교육』 제12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6  
 김명준, 「〈상춘곡〉의 결어 재해석과 시가사적 위치」, 『한국시가연구』 제20집, 한국시가학회, 2006  
 김민주, 「규방가사에 나타난 여성의식 연구」, 성결대 석사논문, 2006  
 김복희, 「신변탄식류 규방가사에 나타난 꿈의 양상 연구」, 부경대 석사논문, 2006  
 김신중, 「송강가사의 당대적 가치와 현대적 수용」, 『고시가연구』 제17집, 한국고시가학회, 2006  
 김은희, 「가사의 가창방식에 대한 일고찰」, 『반교어문연구』 제20집, 반교어문학회, 2006  
 김창곤, 「12가사의 악곡 형성과 장르적 성격」, 서울대 박사논문, 2006  
 김창규, 『노계시문학논고』, 박이정, 2006  
 \_\_\_\_\_ 편, 『노계 시문학 원전자료집성』, 박이정, 2006  
 김팔남, 「새로 발견된 소악루 이유의 가사 몇 편에 대하여」, 『고시가연구』 제18집, 한국고시가학회, 2006  
 김현식, 「〈영삼별곡〉과 〈도통가〉를 통해서 본 권섭의 가사 창작 양상과 그 의미」, 『국문학연구』 제14호, 국문학회, 2006  
 박경주, 「18-19세기 사대부 가사에 나타난 일상성의 양상」, 『국문학연구』 제14호, 국문학회, 2006  
 박명희, 「존재 위백규의 현실인식과 시적 형상화」, 『고시가연구』 제18집, 한국고시가학회, 2006  
 박애경, 「일본 기행가사의 계보와 일본관의 변모양상」, 『열상고전연구』 제23집, 열상고전연구회, 2006  
 박연호, 「송강문학의 형성 배경」, 『우리어문연구』 27, 우리어문학회, 2006  
 박요순, 「소고당 고단과 그의 가사연구」, 『한남어문학』 제30집, 한남대 한남어문학회, 2006  
 백순철, 「소정가사의 독립의식과 문체적 특징」, 『어문논총』 제45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06  
 신경숙, 「옥소 권섭의 음악경험과 18세기 음악환경」, 『국제어문』 제36집, 국제어문학회, 2006  
 윤영옥 외, 『한국시가 넓혀 일기』, 문창사, 2006  
 장성진, 「개화가사의 주제 범주」, 『문학과 언어』 제28집, 문학과언어학회, 2006  
 전재강, 「침괘 가사에 나타난 선의 성격과 진술 방식」, 『우리말글』 제37집, 우리말글학회, 2006  
 정무룡, 「합천 화양동 윤씨가 세전 <기수가>의 논쟁 양상 연구」, 『한국시가연구』 제21집, 한국시가학회, 2006  
 \_\_\_\_\_, 「합천 화양동 윤씨가 世傳 <기수가>의 문화적 함의」, 『한국문학논총』 제44집, 한국문학회, 2006  
 정인숙, 「〈사미인곡〉의 공연예술적 변용과 그 의미」, 『국어교육』 제120호, 한국어교육학회, 2006  
 정재호·장정수 공저, 『송강가사』, 신구문화사, 2006  
 정한기, 「가사 <기음노래>의 작자와 창작 배경」, 『고전문학연구』 제30집, 한국고전문학회, 2006  
 \_\_\_\_\_, 「가사 <나부가>의 형성배경에 대한 연구」, 『어문연구』 제34권 제1호(통권129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6  
 조세형, 「가사를 통해 본 여성적 글쓰기, 그 반성과 전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2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6  
 조태성, 「〈선운사풍경가〉에 대하여」, 『한국언어문학』 58, 한국언어문학회, 2006  
 최상은, 『가사문학의 이념과 정서』, 보고서, 2006  
 최현재, 「미국 기행가사 <해유가>에 나타난 자아인식과 타자인식 고찰」, 『한국언어문학』 제58집, 한국언어문학회, 2006  
 함복희, 「서사적 가사 담론의 주제의식」, 『어문연구』 제34권 제1호(통권129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6  
 허남춘, 「가사를 통해 본 중국과 일본」, 『어문연구』 제52권, 어문연구학회, 2006  
 황병익, 『고전시가 다시 읽기』, 새문사, 2006

## 5. 잡가, 시가교육, 기타 일반론

- 고은지, 「20세기 유성기 음반에 나타난 대중가요의 장르 분화 양상과 문화적 의미」, 『한국시가연구』 제21집, 한국시가학회, 2006  
 김문태, 「북한 고전시가관의 변모와 현대적 수용양상」, 『한국시가연구』 제21집, 한국시가학회, 2006

- 김은철, 「고시가에 나타난 두 세계관」, 『새국어교육』 통권72호, 한국국어교육학회, 2006
- 박애경, 「20세기 초 대중문화의 위상과 시가」, 『민족문학사연구』 제31집, 민족문학사학회, 2006
- 박연이, 「『잡가집』 소재 가사의 서술특성 연구」, 성균관대 석사논문, 2006
- 박연호, 「놀이공간에서의 문학적 금기위반과 그 의미」, 『어문연구』 제50권, 어문연구학회, 2006
- 박진태, 「지역문학으로서의 고전문학」, 『우리말글』 제37집, 우리말글학회, 2006
- 박춘우, 「대화체 시조의 작시 원리와 교육적 활용 방안 연구」, 『어문학』 제92집, 한국어문학회, 2006
- 서명희, 「시조 교육에서 태도의 개념」, 『국어교육』 제119호, 한국국어교육학회, 2006
- \_\_\_\_\_, 「시조 수용 태도 교육 연구를 위한 <오우가> 읽기」, 『고전문학과 교육』 제11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6
- 염은열, 「기행가사의 ‘공간’ 체험이 지닌 교육적 의미」, 『고전문학과 교육』 제12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6
- 이정환, 「시조의 교육적 적용 방안 연구」, 『시조세계』 제7권 제4호(통권25호), 시조세계사, 2006
- 장유정, 「대중매체의 출현과 전통가요 텍스트의 변화양상 고찰」, 『고전문학연구』 제30집, 한국고전문학회, 2006
- 정우영, 「<헌화가>의 초등학교 국어교과서 교재화 방안 연구」, 『어문학교육』 제32집, 한국어문교육학회, 2006
- 정종진, 「고전시가 돈호법의 시적 기능고」, 『어문연구』 제34권 제1호(통권129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6
- \_\_\_\_\_, 『한국고전시가와 돈호법』, 한국문화사, 2006
- 조동일, 「한시에 대응한 민족시어의 운율」, 『한국시가연구』 제21집, 한국시가학회, 2006
- 최홍원, 「‘엇디하리’ 표현을 통해 본 고전문학교육의 가능성」, 『고전문학과 교육』 제11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6
- 한영숙, 「잡가의 개념에 대한 재고」, 『국악과 교육』 제24집, 한국국악교육학회, 2006